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조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면류관 벗어서(찬25/새25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노승남 집사 2부/다무라고조 장로 3부/박영덕 장로 4부/오 준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축복(The Beatitudes) (작곡 H. R. EVANS)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9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2:3-23:5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7) 적과의 동침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반격의 서막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배드림이 기뻐됩니다, 평화의 기도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친구 목사

Pastor Friend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요즘 자주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앉아서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계획 있는 만남도 아니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해관계도 아닌, 그냥 보기만 하면 좋고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여과 없이 내놓아도 아무 걱정 없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제법 이른 나이에 한인이 별로 없는 한적한 뉴잉글랜드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Give me Scotland, or I die”를 좌우명 삼아 겁도 없이 뛰어든 목회의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 사람 사람들... 이민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 믿고 달리면서 만난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목회 철학이 같아서 일 년에 한 번은 만나자고 손가락 걸고, 열 명의 친구들이 대동단결하여 늘 만나왔는데, 지난 10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얼굴서로 보자고 비행기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이 솔직히 사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 일부러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호텔 방에 모여 앉아 밤을 새우다시피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며 깔깔대다가 때로는 교회의 아픔을 겪는 동료들의 안타까움에 같이 울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우리의 아픔은 치유되고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날 선 듯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계속 바빴던 스케줄을 소화하고 갑자기 찾아온 조용한 시간. 사무실에서 창 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친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른 오후이지만, 실내 공기는 살짝 오싹할 정도로 싸늘해서 그런지, 두 손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비록 같은 교회를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30년 넘게 옆에서 함께 달려왔던 친구들을 생각하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하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미국 대각성 부흥(The Great Awakening)의 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책을 읽으며, “하나님, 저의 목회에도 이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30년간 밤하늘에 폭죽 터뜨리듯 수놓인 이 부흥을 밤새워 함께 이야기할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아마, 지금은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더 깊이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야겠습니다.

I miss my friends lately. My heart yearns to share with them old stories and heartfelt discussions about what we must do in the future. Friends don't need to have planned meetings, nor understanding of some mutual benefits. Friends just want to see each other and be able to share their heartfelt thoughts without any worries. When I began my ministry at a relatively young age in a small rural town of New England, with John Knox's words "Give me Scotland, or I die" as a motto, I jumped into ministry without fear. Along the way, I met countless number of people... people who believed that they were called to immigrant ministries. They were co-workers I've met along the way in this pastoral race. There were 10 of us who shared the same pastoral philosophy and have vowed to meet every year, and we did. However, with everyone's busy schedules, we have not been able to meet for the last 10 years. Honestly, flying to a place to see them in the midst of busy schedule felt like a luxury. In the beginning, we were strengthened just by seeing each other. We tried to attend the same conferences together. We would gather in a hotel room; talk and laugh through the night. Time to time, there would be a colleague going through a painful experience. We would cry and pray together. After a while, he would be healed and find new resolve for God's calling.

One afternoon, after finishing my busy schedule, I stood by my office window in a moment of quietness. Faces of my friends passed through my mind like street lamps. Although it was an early afternoon with sun shining through, I kept rubbing my hands since temperature in the office was a bit chilly. Even though we did not serve in the same church, but for more than 30 years, we ran this race together. When I think of my friends, I am filled with emotions. I realize I am here, in this place, today because of their encouragements and prayers. I am filled with gratitude.

As I read Jonathon Edward's book, who began The Great Awakening in America, I prayed, "God, help me to see this kind of revival in my ministry!" I miss my friends whom I shared about this kind of revival for 30 years, talking through the nights with excitement like fireworks...Perhaps, this isn't the time to talk about revival, but to continue the prayers for revival on our knees. Before leaving my office for the day, I must pray for my friends.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7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적과의 동침
(마 5:9)

1. 인류의 역사는 평화 보단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평화와 전쟁 중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 왔나요?

2.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 중임을 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전쟁 중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참고/ 롬 5:10, 5:1, 롬 8:7)

3. 적과의 동침을 끝내는 진정한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은 세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1) _____ (참고/ 창 32장, 마 10:34-36, 왕하 5장)

2) _____ (롬 5:10)

3) _____ (엡 2:14-18)

4.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복을 누리는지 나누어 봅시다.(참고/롬 8:17, 갈 4:6-7)

1) _____ (사 43:21)

2) _____ (벧전 3:8-11, 롬 12:17-19)

■ 적용찬양: 예배드림이 기뻐됩니다, 평화의 기도

적용하기



신년인사-목회자(2)

하늘과 땅에 증인 삼으신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총괄)

하나님의 은혜로 예살을 섬긴 지 일 년 반, 베델교회에 온 지는 이제 6년째가 되어갑니다. 베델에서

보낸 햇수가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와 같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 흐트러진 저 자신을 발견할 때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되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되 매이지 말자" 예수님께서서는 목숨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 오기 위해 한국에서 영상으로 인터뷰를 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왜 굳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로 오려고 하는가?"라는 답임 목사님의 질문에 "굳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굳이 미국에 갈 이유는 없지만, 만약 주님께서 저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면 가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한 그때의 대답이 지금도 유효한지 스스로 묻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베델교회와 예살의 청년들을 섬기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코로

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은혜보다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며 2022년 올 한 해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유미 전도사
(예살채플)

2022년도 여전히 주님께

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매마른 땅, 광야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저희 예살 공동체에 차고 넘쳐흐르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장 10절)



Justin Kim 목사
(BGC Lead Pastor)

BGC(Bethel Grace Church) 영어 교회의 2022년 비전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의 "No Greater Love" 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BGC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BGC 영어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an Nam 목사
(BGC Family)

도전의 시간을 지나오며

그래도 여전히 좋으신,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임직자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며 시작한 2022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시작한 한 해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섬김 중에도 주님은 저희 Bethel Grace Church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올해는 제자 훈련과 임직자와 새 가족 훈련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델의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데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eter Lee 전도사
(BGC 대학부/예배)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BGC 대학부를 특별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의 예배와 훈련,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인사-목회자(2)

온전히 아름다운 공동체



여욱제 목사
(영어 고등부)

"새해, New Year", "새 귀, New Ear" 들음에서 나는 믿음, 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어 고등부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를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자.
둘째, 학생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훈련하자.
셋째,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자.
넷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자.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호승 전도사
(영어 중등부)

BYM 중등부에서도 2022년 비전을 "Go Deeper and Go Higher in His Word,"로 세우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도 험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무 흠도 없이 완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어 중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사로 굳게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형석 전도사
(한어 중고등부)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낮아짐'이라는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어짐으로 기억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성을 통하여 영적인 상승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더 깊고 더 높은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부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사랑하는 베말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건강하고 깨끗한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란혜 전도사
(Beyond the Blue)

Beyond the Blue 사역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슬픔으로 힘들었던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품으시며,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고, 주님은 그 아픔을 이기고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슬픔을 걷어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편 40편 8절) 이 말씀대로 주께서 온전히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

셨던 것처럼 지와 정과 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욱 깊이 엮드리 무릎 꿇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앤드류 전도사
(통역/영어제자훈련)

언어의 장벽을 넘어 베말 KM의 1.5세와 2세, 그리고 외국인 성도님들을 영어로 섬기는 귀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YouTube 생방송과 현장에서 영어로 동시통역하는 '통역팀', 훈련된 평신도 영어 양육 리더가 인도하는 '영어 양육반', 목회자가 영어로 훈련시키는 '영어 제자반', 그리고 영어 양육반 리더를 배출하는 '영어 양육 리더 훈련반'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다리 역할에도 힘쓰며 언어와 민족, 세대와 문화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베말의 모든 성도님이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말씀으로 하나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Go Deeper, Go Higher" 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큐티인 간증(2)

맘속에 들리는 음성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창세기 12:8)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위스콘신에서 20년을 살면서 다른 지역에는 거의 가지 않고 평범하게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일어났고 그 기간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그렇게 내 안에 갇혀서 2년을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정말 우연하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집에 와서 지금까지 6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확신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베델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위스콘신이 아닌 얼바인에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제단을 쌓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교회에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일 매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나 혼자 아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행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경희 집사

2022년 새해 새롭게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 큐티인은 일상 속 작은 선물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라 분주하지만, 말씀을 오롯이 묵상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어찌면 남은 시간을 활용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시

간이 되면 하고, 안되면 내일하지라는 부수적인 활동의 일부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일을 하루만 하고 다음 날 쉴 수 없듯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곤고해질테지요. 지난 일월 한 달 동안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며 우리의 사소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고백하며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음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에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생활 속 기적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진희 집사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후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크든 작든 삶의 여정을 걷는 누구에게나 지나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러했듯이 이민 생활을 하는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2년이 넘어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숲을 지나면서 어려웠던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주님,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영건 인생살이,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결국 광야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는 인내의 장소이고 함께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은혜스럽지 않은 찬송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찬양은 힘들 때 비타민 보다 더 힘이 나고, 경건과 기다림을 가르쳐준 치료제 찬양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사랑하는 친정엄마를 보내면서도 온 가족이 감사와 찬양으로 기쁘게 보내드릴 수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겨진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으로 진정 행복했노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미쁜 입술이 되기를 소원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기도와 큐티로 나아갑시다.

한자영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호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한 셀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오픈 셀

오늘로 새생명 축제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VIP(전도 대상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셀이 함께 한 영혼을 품는 오픈 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픈 셀(Open Cell)이란 혼자가 아닌 셀식구와 함께 여러 번에 걸쳐 VIP를 셀모임에 먼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셀식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오픈 셀입니다. 평상시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IP들이 오픈 셀을 통해 마음을 열고 셀을 통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셀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셀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나 혼자만이 아닌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고, 특별히 셀이 함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픈 셀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셀모임 시 빈 방석을 놓고, 채울 수 있는 VIP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 ② 셀식구들이 매일 같은 시간대에 VIP들이 오픈 셀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③ VIP가 방문하는 날에는 기존의 셀모임 방식보다는 친교 중심으로 해주시고, 환한 미소로 섬깁니다.
- ④ 유의할 것은 정치적인 주제는 삼가주시고, 대화 속에 항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 ⑤ 오픈 셀을 마치면서 VIP에게 다음 모임에 한 번 더 참여해달라고 초대하고, 2번 정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교회로 초대하고, 약속을 잡아 같이 교회로 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 "한 셀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오픈 셀에 모든 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셀,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 오픈 셀 기간: 2월-4월 17일 부활 주일 전까지

▶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2,3월) | 2/27: ①부-박원식 ②부-박선화 ③부-박상곤 ④부-이신경
 3/6: ①부-박재문 ②부-박재영 ③부-박지학 ④부-이종원
 3/13: ①부-박 청 ②부-배진용 ③부-백영만 ④부-이효민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2,3월) | 2/26: 김요한 3/5: 김정우 3/12: 김종곤 3/19: 김종철

강단꽃(2,3월) | 2/20: 노성애, 박창현, 조 롱 2/27: 오영옥, 이나미 3/6: 김창남, 장한이, 주성필 3/13: 한동희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세영(한의사), 간호사-황미례

다음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과), 간호사-이옥선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현장 예배 전면 오픈

베델교회는 모든 예배가 전면 오픈이 되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 '새생명 축제' 오픈셀을 위한 2차 VIP 작정(D-56)

오늘, 오픈셀에 초대할 VIP를 위한 2차 작정이 있습니다. 오픈셀은 멀리사는 분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VIP를 셀로 초대해서 혼자가 아니라 셀식들이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셀모임시 초대할 VIP를 작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비전 주차장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비전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사오니 모든 교회 임직들과 봉사자 분들은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교회 셔틀을 타고 교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바로 출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주차장 입구는 셔틀버스를 타는 곳(원형 로타리)이 아닌 반대쪽 입구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베델 수요예배 안내

봄을 맞이하여 수요예배가 다시 드리집니다. 오는 3월 2일(수)부터 시작하는 베델수요예배는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리지며 주중에 드리지는 공예배로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수요예배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방영 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베델 제자반(3단계, 30주) 봄학기 훈련생 모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어지는 것이다. 봄학기 제자반은 제자반은 3월 8일(화)부터 시작되며 모든 훈련은 대면(In-Person)을 원칙으로 하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장소는 개별통지 됩니다.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바이블 클럽 모집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바이블클럽을 모집합니다.

개설 구분: 1.빌립보서 - 요한계시록 (기간: 30일(월-금)/ 하루 4장)

2.모세오경 (기간: 40일(월-금)/ 하루 5장)

신청기간 및 방법: 2월 20일 - 2월 27일,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최호석 집사 (949)236-0042, life@bkc.org

◆ 베델 BAM 훈련 모집

비즈니스 세계 속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베델 BAM훈련이 1단계: BAM 이해와 삶 과정, 2단계: BAM 사례 연구 과정으로 열립니다. 훈련은 온라인으로 영상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본당 앞 부스나 홈페이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 3월 3일(목)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 다음세대 제자훈련 2단계 등록

교회학교에서는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도록 리더로 훈련하는 제자훈련 2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등록 기간: 2월 13일(주일)-2월 27일(주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
대상: 5-12학년

훈련 기간: 3월 6일(주일)-5월 29일(주일), 매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C2C(Call to Christ) 등록

다양한 워십 장르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C2C 봄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등록 기간: 2월 13일(주일)-2월 27일(주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

대상: 6-12학년

클래스 기간: 3월-6월 말, 매주 금요일 오후 4-7시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QTin 3-4월 판매 안내 (영어, 새싹, 어린이, 청소년)

QTin 3-4월호를 교회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년 큰글씨 큐티인, 영어 큐티인, 새싹(유아,유치), 어린이(유초등부), 청소년 한글 큐티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영어 큐티인은 각 부서에서 PDF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등록 및 입학설명회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과 품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로 키우는 BCA 2022-2023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대상: 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등록: www.bethelclassical.org

입학 설명회 일시: 2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입학 설명회 장소: 유년부 예배실(Zoom 참여: 홈페이지 참조)

문의: Emily Kang (949)854-4013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leeping with the Enemy

(Matthew 5:9)

1. Human history is stained more by periods of war than that of peace. Looking back on our own lives, between peace and conflict, what has had more impact?

Apply to Life



2. Bible tells us that we humans are currently at war with God. What part of you are you still at war with God? (Ref: Rom 5:10, 5:1, Rom 8:7)

3. To put an end to sleeping with the enemy with a genuine effort of peace making involves recognizing and accepting three things. What are they?

1) _____ (Ref: Gen 32, Matt 10:34-36, 2Kgs 5)

2) _____ (Ref: Rom 5:10)

3) _____ (Ref: Eph 2:14-18)

4. To be called sons of God means being blessed as God's heirs. Please share and discuss whether we have received such blessings as children of God.

1) _____ (Isa 43:21)

2) _____ (1Pet 3:8-11, Rom 12:17-19)